생애 노동소득 45세 '3354만원' 정점…59세부터 적자 인생

통계청, 2017년 국민이전계정 발표

0~27세도 적자…흑자 인생 31년 뿐

16세 3215만원으로 인생 최대 적자

우리 국민들은 28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5세에 정점을 찍었다가 정년을 목전에 둔 59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전년보다 7.1% 늘어난 118조2000억원이었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이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선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노동연령층(15~64세)에선 흑자를 기록한다.

1인당 생애주기상 한국인은 0~27세까지는 교육 등의 이유로 '적자'의 삶을 살다가 이후 본격적인 노동 활동을 시작하면서 28~58세까지는 '흑자'의 삶을 산다. 이후 은퇴 등의 영향으로 59세부터는 다시 '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16세로 3215만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348만원이나 적자 폭이 커졌다.

생애주기적자는 28세에 흑자로 전환돼 45세에 1484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생애 최대 소득 시기는 전년대비 4년이나 미뤄졌다. 흑자 규모도 전년보다 178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후 흑자 폭이 급격히 줄면서 59세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생애 중 노동소득은 881조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고, 소비는 999조2000억원으로 4.9% 늘어 적자 규모는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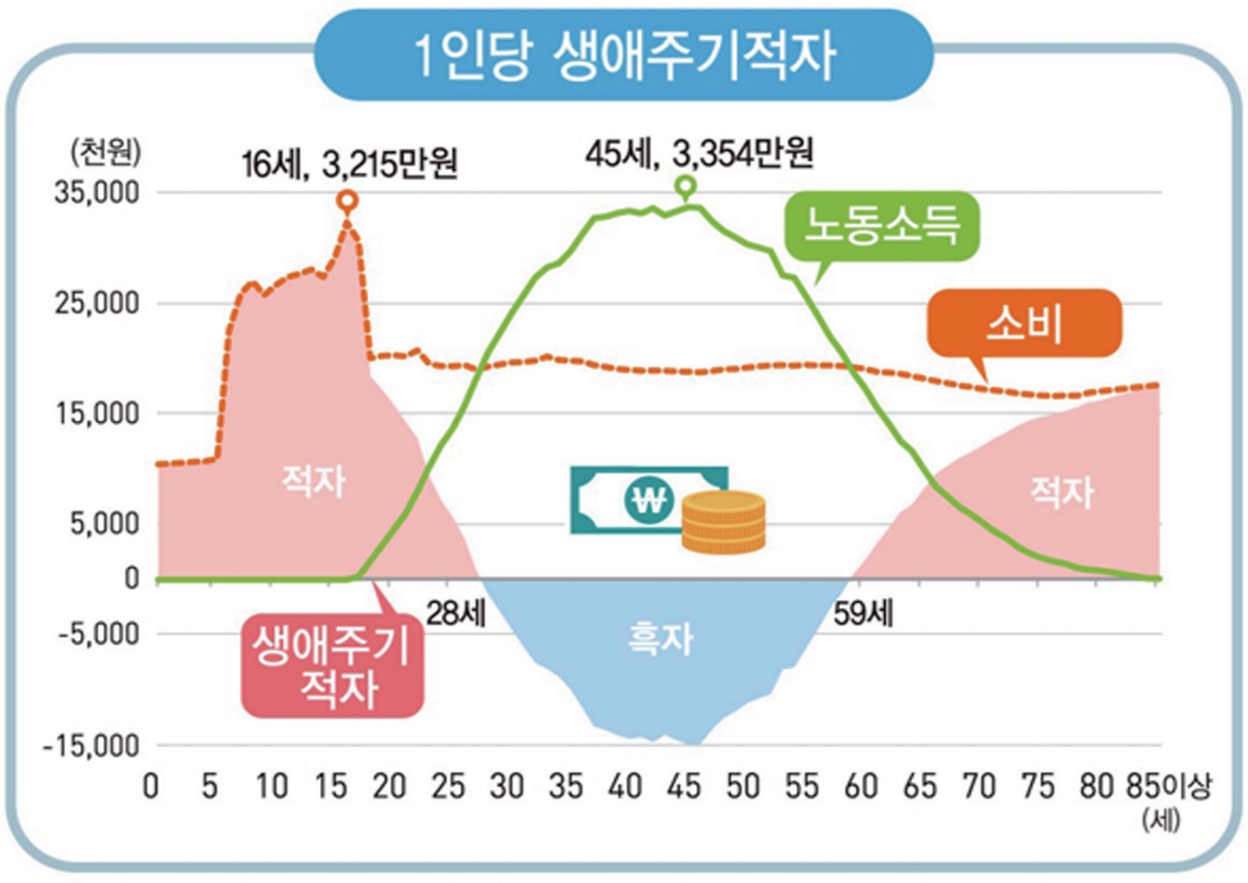
연령계층별로는 유년층(135조7000억원)과 노년층(94조6000억원)의 적자가 전년대비 3.9%, 2.4% 커졌다. 노동연령층(112조7000억원)의 흑자는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통계청은 "공공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 규모가 늘었고, 노동연령층의 흑자규모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층의 공공소비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늘었다. 공공소비는 유년층에서 65조1000억원, 노동연령층에서 168조5000억원, 노년층에서 49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공공소비 가운데 보건은 유년층이 5조1000원(2.1%), 노동연령층이 36조4000억원(8.5%), 노년층이 28조4000억원(12.1%)이었다. 노년층이 전체 공공 보건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0%(40.6%)를 넘어섰다.

민간소비 역시 전년대비 4.2% 증가한 716조1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년층에서 70조6000억원(2.9%), 노동연령층 573조6000억원(4.5%), 노년층 71조9000억원(3.0%)으로 각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계정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파악하는 것으로 잉여자원이 세대별로 이전·재배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1월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처음 발표했다.

김민정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값 6.15% ↑…매매·전세, 수도권·지방 '동반 상승'

세종시, 수도 이전설에 무려 43.64% 껑충

대전 16.01%, 경기 11.10%, 인천 8.80% ↑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6.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를 비롯해 전세, 수도권과 지방 가격이 모두 올랐다. 특히 수도 이전설의 중심에 선 세종시는 무려 47%나 껑충 뛰었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11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6.15% 올랐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세종이 43.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설이 나오고, 지역 내 수요도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다음으로는 대전 16.01%, 경기 11.10%, 인천 8.80%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은 내부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형 중심의 아파트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0월 기준 73만8000건으로 역대 1~10월 중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6만9000건, 지방 5개광역시 16만1000건, 기타지방 20만9000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던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4~5월 주춤한 양상을 보였지만 6월과 7월은 각각 월간 10만건 이상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8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5년 월평균 거래량 5만4465건에 비해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단기투자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분양권전매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분양권전매 거래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6%(9만6752건)로 줄어들면서 2016년 이후 최소비중을 기록했다.

증여는 5.72%(7만2349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할 시군구 외 외지 수요는 47.49%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지난해10월, 수도권 지난해 8월부터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달까지 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세종이 가장 높은 49.34% 올랐다. 전국 평균(5.72%)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12.97%, 대전 12.18%, 경기 8.27%, 인천 7.86% 등이었다. 제주는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 하면서 -1.29%로 조사됐다.

세종은 매매시장과 같이 수도이전 이슈가 불거지고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울산은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1~10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44만5000건으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27만5000건, 지방 5개 광역시 7만1000건, 기타지방 9만9000건을 나타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의 동반 상승하고 침체기에 있던 지방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라며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하와 통화량 증가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선옥 기자

농협은행 503명 명예퇴직 신청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은행권 감원 칼바람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점포 수 축소 흐름 등이 겹쳐 과거보다 퇴직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명예퇴직 신청에는 직원 총 503명이 몰렸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숫자(356명) 보다 147명 더 늘어났다. 예년보다 더 좋은 퇴직 조건이 제시되며 신청자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은행은 올해 명예퇴직 보상을 늘렸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65년생과 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엔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또 67년생부터 70년생까지의 직원과 71년생부터 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는 전직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 전직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 48~55세 직원에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꽤 많은 수의 직원들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SC제일은행은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동취재본부

"줄줄이 폐점"…외식업계, '더구나 2.5단계' 역대 최악 위기

연말 대목 앞두고 매출 회복도 어려운 상황

외식업계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외식 경기가 둔화된데다가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워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2020년 대한민국 외식업계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9월 신한카드 외식업종 카드 결제액은 71조7790억원이다. 작년 동기(79조7445억원)보다 10.0% 감소했다. 월별 감소율은 코로나19 1차 유행이 있던 3월이 18.1%로 가장 컸다. 4월(-13.7%)과 코로나19 2차 유행이 일어난 8월(-12.0%)도 큰 편이었다. 반면 올 1~9월 배달 소비 분야 카드 결제액은 4조64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2조6481억원) 대비 75.4%나 급증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치킨·버거 브랜드 파파이스는 이달 말 국내에서 철수한다. 1994년 압구정에 1호점을 낸지 26년 만이다. 한때 매장이 200개를 넘었지만, 외식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다. 파파이스 운영사 TS푸드앤시스템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89% 감소한 125억783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9.76% 늘어난 12억9427만원이다. 올 하반기 기준 매장수는 10여 곳이다.

TS푸드앤시스템 관계자는 "미국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도 이달 말 끝난다"며 "수년 전부터 매출 하락으로 파파이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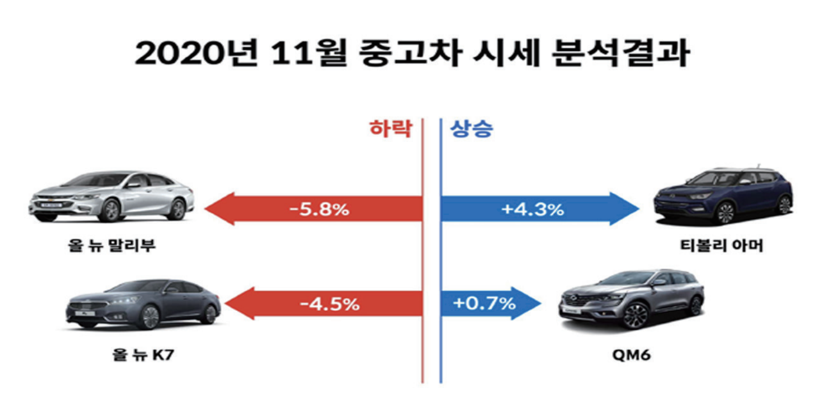
CJ푸드빌 '계절밥상'은 올해 초 매장 15개를 운영했지만, 현재 9개로 줄었다. 이중 4개 매장은 뷔페가 아닌 식당처럼 1인 반상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빕스' 매장도 코로나19 확산 후 4개가 폐점해 41개만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이츠는 올 상반기에만 '애슐리' '자연별곡' 등 매장 30개가 폐점했다. 애슐리는 이달 기준 총 81개(애슐리 클래식 4개,애슐리 W 15개, 애슐리 퀸즈 62개), 자연별곡은 13개다.신세계푸드도 '보노보노' '올반' 등 3개 매장을 접어 각각 3개, 2개밖에 남지 않았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2단계 이상 조치가 장기화되면 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차단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면서 "폐점하는 매장이 점점 늘고 있다. 비효율 매장은 줄이고 일부 매장은 리뉴얼해 재배치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 연말까지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형 뷔페는 이미 두달간 문을 닫아봤기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돼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매출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 서비스 확대와 레스토랑 간편식(RMR) 출시 등으로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김미희 기자



중고차시장 시세, 세단↓·SUV↑

중고차시장에서 세단 가격은 떨어지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가 7일 발표한 '12월 중고차 시세 분석결과'에 따르면 SUV 모델은 비대면 차박 열기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세단 모델은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형 SUV 티볼리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4.3% 상승했으며, 입찰 참여 딜러 역시 평균 20명으로 시장 인기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M6의 경우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0.7%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

세단은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다. 전월에 비해 올 뉴 말리부가 5.8%, 올 뉴 K7이 4.5% 아우디 A6가 4.8% 각각 하락했다

이번 데이터는 2018년형 모델 기준, 2020년 11월 한달 간 헤이딜러에서 경매 진행된 주행거리 10만km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헤이딜러는 매월 5만대 이상의 개인 차량이 등록되고, 50만건 이상의 중고차 딜러 매입 견적이 제시되는 국내 최대 내차팔기 서비스다.